신중년 다시 뛰는 광양…‘5060 리스타트 프로젝트’ 활기

중장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중장년정책위원회 신규 설치
재취업·사회참여 활동·건강한 노후 등 3개 분야 정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연계·경력 활용 사회공헌 등 큰 성과

광양시의 중장년층 재도약을 위한 ‘50·60 리스타트(Re-start)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고 있다.

‘신중년이 다시 뛰는 희망찬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프로젝트는 인생 2막을 여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은퇴 후 재취업’·‘사회참여 활동’·‘건강한 노후 준비’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광양시는 지난 7월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중장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른 정년 연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에 타 지자체의 관심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신중년 구직자의 은퇴 후 재취업 지원이다. 광양시는 재취업을 원하는 신중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에 전남 유일의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광양시 근로자 복지회관 내 위치)를 구축했다.

센터에 배치된 인력(전담 인력 1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근로자 4명)은 취업을 원하는 신중년의 경력을 분석하고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 기업 발굴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92건의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214건의 취업 알선이 이루어졌으며 취업 연계는 8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근무뿐만 아니라 도서관 지원, 읍면동 민원실 민원 서류 작성 지원 등으로 업무 분야를 확대해 전문경력 있는 신중년 구직자를 발굴하고 재취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외에도 근로 능력을 갖춘 신중년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지원형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전하고 있다. 시가지 환경정화, 꽃 가꾸기 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80명을 고용, 4억1천4백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문에 50명을 고용, 4억9천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두 번째 목표는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중년 재능 나눔을 통해 돌봄, 학습 보조, 사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70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성·경력을 갖춘 50~70세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와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해 퇴직 후 삶에 나눔과 가치를 더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신중년의 건강한 노후 준비 지원’이다. 광양시는 신중년 은퇴자 26명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노후 인간관계, 여가 관리, 재무관리 및 진료 성향 탐색, 재취업 실천 코칭, 상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막연하게 생각하던 은퇴(예정)자들은 신중년 은퇴자의 생애 재설계 및 노후 준비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기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입소문 덕분에 참여희망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생애전환기에 있는 신중년 세대들의 재취업 지원은 물론 기술혁신과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하고, 생애 재설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정책위원회의 주도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신중년의 역량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고흥군 추석 연휴 드론쇼 특별공연 포스터.

고흥 녹동항서 추석 연휴 1500대 드론쇼

14~17일…해상 불꽃쇼 공연도

고흥군이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오후 9시 녹동항에서 ‘1500대 드론쇼 특별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얼과 멋’, ‘추억여행’ 등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됐다. 15일과 17일에는 해상 불꽃쇼도 함께 펼쳐진다.

드론쇼 공연에 앞서 녹동 바다정원 내에 제기차기, 굴렁쇠 등 전통 민속놀이와 RC카 조종 체험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람객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 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요원 50명 이상을 배치해 행사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행사의 특성상 우천,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군 대표 누리집과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귀향객과 군민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우호교류 15년 프랑스 낭트시 꽃·식물박람회 참여

한국 전통문화 공연 등 선보여

순천시는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프랑스 낭트시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라 폴리 데 플렌테스(La Folie des Plantes)’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순천시는 우호교류 15주년을 맞이한 낭트시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 또한 순천시는 개회식 축하 인사와 함께 사물판굿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양 도시 간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낭트시의 의미 있는 행사에 순천시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협력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 폴리 데 플렌테스’는 낭트시에서 매년 9월 개최되는 식물 축제로 다양한 식물 전시와 판매를 비롯해 생태와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프랑스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꽃·식물 박람회이다.

유현호 순천시부시장이 낭트시 부시장으로부터 ‘라 폴리 데 플렌테스(La Folie des Plantes)’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한편, 순천시와 낭트시는 지난 2009년 10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원·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24일까지…사고 대비 상황실 운영

광양시는 추석 연휴 기간 감독기관의 관리 여건 취약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연휴 전부터 연휴 후까지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사전홍보 및 계도, 특별감시 활동 강화, 영세·취약 업체 기술지원 등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이전에는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계도 활동을 먼저 시행한다. 계도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규모 공사장 등 환경오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사업장에서는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해찬ENC, 추석 나눔 물품 구례군에 기탁

300만원 상당 라면·송편

㈜해찬ENC가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물품’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해찬ENC는 매년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총 300만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와 모시송편 110박스를 구례군에 기탁했다.

이날 심명섭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외로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매년 전해주시는 따뜻한 나눔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온정이 담긴 물품을 잘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재능나눔 봉사

취약층 방충망 교체·의료진찰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전문봉사단이 지난 7일 추석을 맞아 재능나눔통합봉사활동을 상사면 서정마을에서 펼쳤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능나눔 전문봉사단을 비롯한 2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재능나눔 전문봉사단은 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전문기술과 재능을 가진 15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올해로 9년째 펼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상사면의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충망 및 LED등 교체, 칼갈이, 화재감지기와 안전바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 의료진찰, 미용, 재활 마사지, 정리 수납, 도배·장판 교체, 나무 전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됐다.

상사면 한 주민은 “어르신들이 많아 이곳저곳 손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도움이 됐다”며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이틀 과정 성료…16명 수료증

보성군의 2024년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과정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보성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한 이번 입문학교 과정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과 9월 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입문학교 과정을 받은 주민들은 마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마을 활성화의 실제 사례를 수강했다.

특히 이번 입문학교 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교육을 진행해 ‘202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마을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수료식에서 신규 마을공동체 9개소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보성군 마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

보성군 주민들이 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한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과정에 참여해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

또 보성군과 보성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새로 발굴된 공동체의 사업계획서 컨설팅, 마을 자원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주민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18개소보다 증가한 23개소에 대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및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작은영화관 재개관…주 5일 상영 예정

곡성군이 운영하는 ‘곡성작은영화관’이 11일 재개관했다.

지난 2017년 개관 이후 곡성군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해 온 곡성작은영화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감소와 위탁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임시 휴관 상태였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 군민들에게 영화를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관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상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한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별히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상영한다.

영화 예매는 모바일 앱 ‘디트릭스’ 가입 후 ‘곡성작은영화관’을 통해 가능하며 영화 요금은 작은영화관 운영 취지를 살려 2D영화는 6,000원, 3D영화는 7,000원으로 책정했다.

재개관 첫날인 11일 ‘안녕 할부지’에 이어, 13일에는 ‘베테랑 2’를 상영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작은영화관이 군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이자 많은 감동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